

폐암에 동반된 자발성 기흉 3예

임 증 수* · 김 원 곤* · 조 규 석* · 박 주 철* · 유 세 영*

— Abstract —

Occurrence of Simultaneous Pneumothorax and Lung Cancer

Jong Soo Lim, M.D.*, Won Gon Kim, M.D.*, Kyu Seok Cho, M.D.*,
Ju Chul Park, M.D.* and Se Young Yoo, M.D.*

Spontaneous Pneumothorax as a complication of lung cancer is rare, as seen from the literature, comprising only 1.13 per cent of all pneumothoraces. All histologic types of lung cancer have been reported principally squamous cell carcinoma probably because of its relatively higher incidence. Beside the fact that it occurs in the same high risk population (Smokers, chronic bronchitis and those with emphysema), pneumothorax may reveal a cancer. Recently, we observed three cases of lung cancer with spontaneous pneumothorax, the one was squamous cell carcinoma and the others were adenocarcinoma. Three cases of spontaneous pneumothoraces occurred as a complication of neoplastic disease.

서 론

자발성기흉의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표, 폐결핵으로 인한 경우가 원인을 알 수 있는 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단방법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해 폐암의 진단 발견율이 높아지고 자발성기흉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이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은 논문으로서 발표되고 있다. 자발성기흉이 발견될 당시 흉막삼출액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본 저자들도 이와 유사한 2예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각각 우측폐에 선암으로 인한 흉막삼출액 치료도중 다른 한쪽 측 종괴가 있는 좌폐문부에 자발성기흉이 발생된 경우와 흉막삼출액을 동반한 자발성기흉 환자에서 흉막삼출액의 암세포 검사에서 폐선암이 발견된 경우였다. 마지막 예는 공기흡인 장치에 의한 치료도중 7일이상

폐허탈이 계속되어 기관지경 검사에 의한 생검으로 폐암이 진단된 예였다.

증 례

1. 증례

환자는 65세 남자로 약 1주간 호흡곤란으로 흉부외과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였다. 본 환자는 과거력상 천식을 앓아왔으며 하루 한갑이상의 껌연을 40년 이상 하였고 청진소견상 전우폐야에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었고 심장음은 정상이었다(사진 1).

자발성기흉으로 폐쇄성흉관상관술을 시하고 촬영한 사진에서 계속 폐허탈을 보였고 1주일간 우폐확장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fiberoptic 기관지경을 시행하였다.

우측상엽기관지 및 중엽기관지에 종양으로 입구들이 좁아져 있고, 이곳에서 생검을 시행하여 편평상피세포암이 발견되었다. 폐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 절제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테라마이신을 이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1989년 10월 29일 접수



사진 1. 내원당시 단순흉부 X-선 사진.

용한 흉막유착술후 퇴원하였다.

2. 증례

76세 남자환자로서 과거력상 우상엽에 폐결핵을 앓은적이 있고 약 40여년간 하루 1갑정도 꺾연하다가 약 15년 전부터 금연하였다. 환자는 약 3주간 지속된 호흡곤란, 흉통, 해소를 주소로 입원하였다. 입원당시 좌측폐문부에 종괴, 우측폐에 다량의 흉막삼출액이 축적되어 있는 단순 흉부 X-선 소견을 보였다.

우측 흉막삼출액을 흉관삽관술로 배액을 시도하였고 테라마이신을 이용한 흉막유착술후 흉관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 1주일 후 호흡곤란이 심하여 다시 촬영한 단순 흉부 X-선 사진상 좌측폐야에 자발성기흉이 발생하였다(사진 2).

환자의 전신상태 악화 및 보호자의 강권으로 호전없이 퇴원하였다.

3. 증례

평소 해소를 심하게 앓던 66세 남자가 2개월 전부터 시작된 기침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하루 1갑의 담배를 30년간 꺾연하였으며 내원 1년전 폐결핵을 진단받았다.

입원시 촬영한 단순 흉부 X-선상 좌측에 늑막삼출액과 동반된 기흉을 관찰할 수 있었다(사진 3).

폐쇄성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여 늑막삼출액의 배액을 하였으며 삼출액의 삼세포검사에서 폐선암이 발견되어 테라마이신을 이용한 흉막유착술 시행 후 퇴원하



사진 2. 우측폐야의 흉막삼출액 배액 후 발생한 좌측폐야의 자발성기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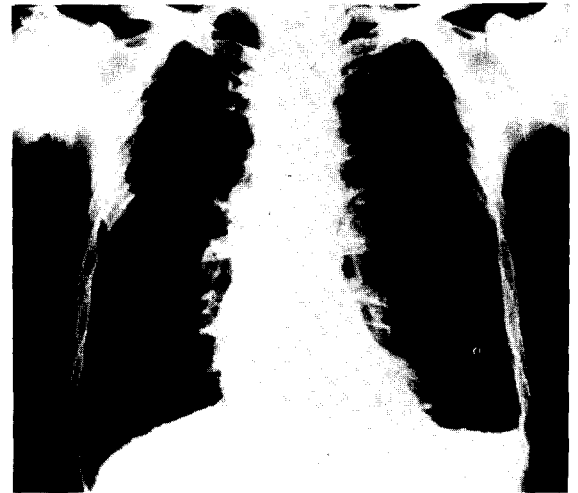


사진 3. 입원당시 촬영한 흉부단순 X-선 사진.

였다.

고 안

대개의 경우 폐암에서 자발성기흉이 될 경우에 원인이 되는 폐암의 진단기일이 평균 2.9개월로 뒤늦게 되고 진행된(stage III) 예가 많아 폐종양을 절제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고 고식적 치료 즉 자발성기흉의 폐쇄성흉관삽관술, 항암요법, 방사선요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1년 생존율은 17%라고 했고 평균생존율은 5.2개월이라고 하였다⁹⁾.

한국에서는 1988년 6월까지 폐암에 동반된 자발성

기흉이 본저자의 경험까지 포함하여 10예가 보고되었다^{12,13,14}).

암세포별로 관찰하여 보면 편평상피세포암이 4예, 선암이 4예, 소세포암이 2예였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폐쇄성흉관삽관술, 항암요법, 방사선치료가 병용되었다(Table 1).

Steinhauslin등⁹⁾은 1985년 자기들이 경험한 6예를 포함하여 문헌에 보고된 예를 포함한 46예를 분석 발표하였다(Table 2).

Table 1. Lung Cancer with Spontaneous Pneumothorax in Korea (n=10)

Squamous cell carcinoma	4
Adenocarcinoma	4
Small cell carcinoma	2

Table 2. Lung Cancer with Spontaneous Pneumothorax in Worldwide (n=46)

Squamous cell carcinoma	50 %
Adenocarcinoma	18.2 %
Giant cell carcinoma	11.4 %
Oat cell carcinoma	4.5 %
Alveolar cell carcinoma	2.3 %
Undifferentiated carcinoma	2.3 %
Undetermined	6.8 %

역시 편평상피세포암이 50%, 선암이 18.2%순으로 가장 많았고 미확인 세포암인 경우도 6.8%나 되었다. 이들은 20여년간 폐암의 연구에서 1.13%의 자연기흉 발생율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기관지 종양의 0.46%를 차지한다고 하였고 편평상피세포암이 호발하는 이유는 이 종양의 빈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한편 자발성기흉이 폐암에 동반되는 원인을^{5,9)} 40대 이상에서 폐암이 상당히 진전된 경우이며 객역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 기포성폐기종, 폐쇄성흉관삽관후 폐확장이 불완전한 경우라 했고, 40대 이상에서 암세포를 발견하기 위해 객담검사, 기관지경검사, 필요하다면 진단개흉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들은 폐암에서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1~11)}.

1) 협착성기관지암의 말초부위에 확장된 세포의 흉막강내로 파열된 경우

2) 폐쇄성기관지암에 의한 무기폐로 인해 보상작용을 하는 폐포가 흉막강내로 파열되는 경우

3) 말초성폐암 및 흉막암이 신속히 진행되어 이차적으로 기관지흉막루를 형성하는 경우

4) 예기치 않게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폐기종성기포환자에서 기관지암으로 인해 폐구조물이 파괴되는 경우라 하였다⁷⁾.

결 론

최근 경희대 흉부외과에서는 폐암에 동반된 자발성기흉 3예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REFERENCES

- Dines DE, Clagett OT, Payne WS: *Spontaneous pneumothorax in emphysema. Mayo Clin Proc* 45:481, 1970
- Dines DE, Cortese DA, Brennan MD, Hanhn RG, Payne WS: *Malignant pulmonary neoplasms predisposing to spontaneous pneumothorax. Mayo Clin Proc* 48:541, 1973
- Epstein DM, Geffer WB, Miller WT, Gohel V, Bonvita JA: *Spontaneous pneumothorax: an uncommon manifestation of Wegener granulomatous. Radiology* 77:455, 1980
- Heimlich HJ, Rubin M: *Spontaneous pneumothorax as a presenting feature of primary carcinoma of the lung. Dis Chest* 27:457, 1955
- Hyde L, Hyde CL: *Rare occurrence of simultaneous pneumothorax and lung cancer. JAMA* 239:1421, 1978
- Killen DA, Gibbel WG: *Spontaneous pneumothorax.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8*
- Laurens RG, Pina JR, Honig EG: *Spontaneous pneumothorax in primary cavitating lung carcinoma. Radiology* 146:295, 1983
- Majahan V, Kupferer CF, Van Ordstrand HS: *Pneumothorax A rare manifestation of primary lung cancer. Chest* 68:730, 1975
- Steinhauslin CA, Cuttat JF: *Spontaneous pneumothorax, A complication of lung cancer? Chest* 88:709, 1985

10. Yeung KY: *Bronchogenic carcinoma presenting as spontaneous pneumothorax. Case report with review of literature. Cancer* 39:2286, 1977
11. Wiliams HO, Kinder PH: *Alveolar cell carcinoma presenting as a pneumothorax. Am Rev Respir Dis* 103:108, 1971
12. 이갑호, 한경숙, 이기용, 박이갑: 자발성 기흉 및 기중격동을 동반한 원발성 폐암 1예. 대한 내과 학회지 27:1643, 1984
13. 박금수, 구철희, 안철민, 손희영, 김성규, 김기호: 폐암에 동반된 자연 기흉 6예. 대한 의학 협회지 28:916, 1985
14. 장성수, 이두연, 박영식, 조범구: 자연 기흉의 임상적 고찰. 대한 흉부외과 학회지 15:267, 1982